

남도가 품은 역사와 인물 이야기

●노성태 역사가 '다시, 남도의 기억을 걷다' 출간

흔히 남도 정신은 '정의로움', '항일', '독립', '민주화'라는 말로 집약된다. 어느 지역보다 당시의 시대정신인 이런 가치들을 앞장서 실천한 흔적들이 조금 더 두껍게 축적된 결과다. 이런 가운데 남도인과 남도 문화의 참모습을 담아낸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국립·18민주묘지

<도서출판 살림터 제공>



선사부터 현재까지...남도 역사·인물·사건 소개 지역에 깃든 민초 삶, 남도 영웅들의 자취 담았다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의 '다시, 남도의 기억을 걷다' (살림터)이다.

남도, 광주를 포함한 전라남도라는 말이 일반인에게 친숙해진 것은 언제부터, 왜일까.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역시 199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답사 여행 붐의 영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인물과 사건 및 관련 유적 답사를 통해 미처 몰랐던 역사의 낱결과 씨줄이 엮여간 자

취를 알아가는 과정은 앞 이상의 깨달음을 주고, 이면에 담긴 진실을 통해 진한 감동을 느끼게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디서나 이런 체험은 옷깃을 여미게 하며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곱씹어보게 한다.

그런데 유독 '남도'에서 느끼는 그것이 뭔가 결이 다르고 폭과 깊이가 다르게 느껴진다.

이 책은 남도 답사에 대한 '또 다른 안내서'가 아니다. 한 세대가 넘은 세월을 역사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역의 대중역사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오랫동안

많은 역사 현장을 누비며 자료를 정리하고, 의미 있는 현장들을 사진에 담았다. 남도가 품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문화유산을 많은 지면과 매체를 통해 이야기하고 책도 여러 권을 냈다.

저자는 그런 작업들이 남도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 늘 부족함을 느꼈다. 많은 역사적 사실과 유적들이 쪼개져 쪼개져 '문화원형의 보물창고'를 열어 가면서 그는 '남도인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밝히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 책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대

순으로 네 장으로 나뉘었다. 제1장은 선사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제2장은 조선시대, 제3장은 근대, 제4장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와 인물, 사건 등을 다룬다.

책 속 총 50쪽의 제목들을 눈여겨보면, 인물 외의 요소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알려진 유적(지)을 비롯해 지역 이름, 마을 이름, 단체 이름 등이 등장한다. 이런 인물의 행적은 인물 중심으로 소개하는 글과는 다가오는 바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역사의 흐름이 급물살을 타는 곳마다 지역에 깃든 민초들의 삶의 체취가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또 책에서는 최치몽, 황대중, 정길, 황준성, 나일환, 김범수, 장석진, 이금주, 윤학자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남도의 영웅들을 소개한다. 그 가운데 생전의 신선한 삶의 자취를 간직하고 말해주는 바가 제대로 갈무리 돼 있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노력을 다하기 위해 지혜가 모아져야 함을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는 "남도의 역사 현장은 어디나 뜨겁고, 감동이며, 당당함이 묻어났다. 이 책이 남도인이 남긴 뜨거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청해진 전진 기지 '장도'

목포문화원, '목포 항일독립운동 자료집' 발간

형사사건부 등 수록...4·8만세운동 등 새로운 사실 발굴

목포문화원은 "전남도와 목포시 지원을 받아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사업을 진행한 결과물인 '목포 항일독립운동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집은 1부 화보, 2부 목포 항일독립운동사, 3부 재판기록(형사사건부, 판결문), 4부 신문조사서, 5부 공훈록, 6부 신문기록 등으로 구성돼 총 877쪽에 달한다.

이번 목포 항일독립운동 자료집에는 일

부 새로 밝혀진 사실들이 눈길을 끈다.

4·8독립만세운동의 주역 남궁혁이 '일본 유학생'으로만 알려졌으나 일본 정칙영학학교(正則英語學校)의 학생이었다는 점, '서울 유학생' 오도근은 경성고보, 김영주는 휘문의숙 학생이었다는 사실, 목사(곽우영), 소사, 신발공, 보통학교 학생 등 성명과 나이, 직업 등이 기록된 4·8만세운동 형사사건부가 발굴됐다.



또 1921년 일어난 영흥·정명 학생 주도의 제2차 독립만세운동 당시 경찰에 체포돼 검사국에 넘겨진 인물만 무려 119명이며 1929년 목포 상업학교학생 시위 때는 80여명에 이른다

는 사실은 당시 목포항일 독립운동이 학생과 일반인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음을 보여준다.

그간 관심 밖에 있던 사회주의 계열 독립

운동이 많은 기록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 정리된 것도 의미가 크다.

목포문화원은 형사사건부·판결문 등 재판기록, 신문조사, 당시 신문기록 등을 중심으로 자료집을 낸 데 이어 이 같은 객관적 사실 기록을 바탕으로 각 사건·부분별 전문가 집필을 통해 '목포 항일독립운동사'를 올해 말 발간할 예정이다.

김정기 목포문화원장은 "목포는 그 어느 지역보다 항일독립운동이 치열했던 곳이었음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됐다"며 "앞으로 보다 깊이있는 조사 연구를 통해 목포 항일 독립운동의 올바른 정립은 물론, 미처훈 독립운동기에 대한 서훈 및 선양사업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새로 나온 책



▲흠에서=송만철 저자

전남 보성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송만철 시인의 여섯 번째 시집이다. 신선스러운 농촌의 삶을 전라도 입말로 생생하게 그려온 시인의 그동안 행보는 여전하지만, 이번 시집에서는 흠이 뿌리박고 살아가는 못 생명들의 몸짓을 있는 그대로 감각화한 시편들이 새로운 특징으로 다가온다. 시인도 이제 이순을 지난 것이다. 21세기 농촌의 피폐한 현실을 증언하고 문명과 위경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견지해온 시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자연과 우주 앞에 겸허히 서 있다.

/문학평·1만원



▲인생의 열 가지 생각=이해인 저자

이해인 수녀의 새로운 산문집 '인생의 열 가지 생각'이 출간됐다. 수도자이자 시인으로 반세기 넘게 사랑을 실천했던 그가 이번에는 인생의 열 가지 화두에 대한 생각들을 나눈다. 그는 그간 기도와 사에서 깊숙하게 다뤄온 가치와 개념들을 '가난, 공생, 기쁨, 위로, 감사, 사랑, 용서, 희망, 추억, 죽음'이라는 열 개의 키워드로 분류했다. 각 작은 삶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써 내려간 글과 함께 읽으면 좋은 이 수녀의 시와 산문으로 구성돼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산문들은 간결하면서도 긴 시간 응축된 통찰과 지혜가 배어났다. 그는 법사에 감사하고 타인을 사랑하며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한편, '죽음'에 관해서도 더욱 깊이있는 사유를 들려준다.

/마음산책·1만6천원



▲어린이의 눈으로 안전을 묻다=배성호 외 5인 지음

이 책은 가슴이 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2022년 10·29참사까지 사회적 재난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관점에서 안전 문제를 바라보며,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어린이 해방 선언' 10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 책은 화학 물질 안전, 어린이 생활용품 안전, 교통안전, 직업 안전, 응급 처치 등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 다섯 명과 나눈 생생한 대화를 통해 알려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본다.

/질수와영희·1만5천원



▲도시 오목눈이 성장기=오영조 저자

정확한 눈과 애뜻한 마음으로 쓴 오목눈이 관찰 일지 '도시 오목눈이 성장기'가 출간됐다. 도시 공원에서 살아가는 오목눈이를 4년 동안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한 책이다. 오목눈이는 그저 양쪽 맞은 세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비슷하게 애 등바등하며 허우허우를 보내는 '이웃'이다. 그렇기에 이 책에서는 사랑스러운 생김새나 용감무쌍한 순간만을 들어 오목눈이를 특별한 존재처럼 여겼던 것이 아니다. 세세하게 살핀 생태를 가깝게 전달하며 이 작은 이웃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삶을 응원한다.

/자연과생태·1만5천원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강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511	1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125-2 396㎡ 제외외 차양등83.6㎡	대	33,413,000 33,413,000	일괄매각, 제외외 건물포함, 목책2일 인소유지변에걸쳐 소재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125-3 [현황주거 부지]161㎡ [물건번호:1:목책3농지취득 종영요, 원상회복명령가능성있음], 목책1지 상소재장고13.14㎡ 외화장실17.1㎡ [태양광 시설포함]매각제외	전		
2022타경 6250	1	강진군 군동면 군동계산길 32 단층98.85㎡ 제외외화장고15㎡ [공유자최혜영지음]	단독주택	35,609,250 35,609,250	제외외건물매각포 함
2022타경 6298	1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454 367㎡ 제외외화 고등101.8㎡	대	5,363,400 5,363,400	일괄매각, 제외외 건물포함, 지분매 각, 공유자우선매 수권1회제한
		강진군 성전면 처인2길 49 단층59.40㎡ [공 유자최경호1/4지분전부] [물건번호:1:매 각제외]인소유수익및건물 [창고]있음	단독주택		
2022타경 6328	1	강진군 마량면 상촌리 358-3 22㎡ 통소 359-1 159㎡	대	7,120,900 7,120,900	일괄매각
		강진군 마량면 하본2길 28-7 단층20평 제 외외화장고106.2㎡ [물건번호:1:제외외건 물포함, 목책3 주택일부인접지분[360,361-3번 지]에걸쳐소재	단독주택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강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726	1	장흥군 정평면 양촌리 164-6 1587㎡ 제외외 수목 [현황일부전부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원상회복명령가능성있음], 수목포함매각	전	40,716,500 40,716,500	강정평가액매각제 외 외의지상건물로 인제제한하는기억
2022타경 6236	2	강진군 월항면 월주리 650 196㎡ [타인소 유]인소유지변에걸쳐	전	2,352,000 2,35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강진군 월항면 영주리 747 2165.1㎡ [농지 취득자격증명요]	답	30,311,400 30,311,400	
2023타경 5292	1	선착함:강진군 마량면 마량항 선박종류와 영정:동력선 심적6호 어선번호:9906003-64 68100 선 질:FRP 총톤수:0.89톤 기관종류 부125-3번지및타 인소유지변에걸쳐	선박	8,016,600 8,016,600	정박지:마량항,보 관장소:전남강진 군강진평동리27 6-24[유]대성선박 대표선원, 어업 허가증없음
		선착함:강진군 마량면 마량항 선박종류와 영정:동력선 심적6호 어선번호:9906003-64 68100 선 질:FRP 총톤수:0.89톤 기관종류 부125-3번지및타 인소유지변에걸쳐	선박	8,016,600 8,016,600	정박지:마량항,보 관장소:전남강진 군강진평동리27 6-24[유]대성선박 대표선원, 어업 허가증없음
2023타경 82	1	시흥면부지:전남 강진군 강진읍 청자로 26 등락번호:004가3743 기종:지게차 연식:202 2 [아워미터가동시간누계7.8시간, 임시유 출기간2024.12.25까지]	중기	30,000,000 30,000,000	보관:전남장흥군 장흥읍장동로 105

● 공고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인인 매각물건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
이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해당 매수인인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생기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
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각기일 : 2023. 7. 10. [월] 10:00
2. 매각장소 : 2023. 7. 18. [화] 14:00
3.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입찰장
4.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추어 기밀유지요청서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 등 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과 함께 입찰봉투
에 넣어 밀봉하여 봉투에 '입찰'을 표시하고, '매수신청'을 표시하여 '1회 10회'에 해당하는 금액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을 준비하거나 자기앞영수증과 필요한 문서를 [공공보증서]에 해당하는 금액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매수인인 것으로 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
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중 높은 순으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인인인과 차순위매수인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5. 매각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해 매각결정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대금지급금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금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에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급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매수인에게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미처 재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6.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한후에 대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등,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기부와 등기부등본을 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제출을 첨부하고, 국민주택특별명령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행위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반
환에 응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① 매각의 주체 또는 사건번호의 최순위의 지위의 등이 불명확한 등본은 면적 기재하고 있는 원문과 다른, 사법
지등부동산을 가진 입찰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원문과 불명확한 등본에 기재된 매각허가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일, 현황조사보고서 및 관장명세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
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행정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
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 내용은 매각결정일에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결과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항은 입찰표에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인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제
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이 결정된 때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
습니다.
⑥ 공고의 물건은 매각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소되거나 협의에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청을 공고되는 물건의 매각일 전에 매수인이,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
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 반
환합니다.
매각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행정정보서비스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해도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일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
함으로써, 즉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관명세서상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
없으므로, 관공되는 물건의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일 공고나 법원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
찰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 6.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사법보좌관 윤정원